

이와미 은광과 유노쓰

여기서 왼쪽에 있는 옛길은 산과 깊은 숲을 지나는 일본해의 항구 도시로, 이와미 은광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한 유노쓰로 이어집니다. 16 세기에 이와미 은광은 '유노 은광(유노긴잔)'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. 이러한 별칭은 1527 년 은이 발견되기 전까지 온천지로만 알려져 있던 유노쓰와 은광의 공생 관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.

은광이 발견되자 유노쓰는 은광을 공급하는 주요 항구이자 중국, 한반도 등 다른 나라와의 교역 거점으로 번창했습니다.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은의 약 10%가 이와미 은광에서 생산되었던 1500 년대 후반에는 유노쓰 옆에 있는 오키토마리라는 작은 만이 광산에서 일본 국내외 시장으로 은을 수송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.

도쿠가와 막부는 1600 년대 초에 이와미 은광을 지배한 후 유노쓰를 통한 은의 수송을 중단했지만, 에도 시대(1603~1867 년) 내내 은광의 주요 물자 공급원이자 해상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. 현재 유노쓰의 마을 구조는 이 풍요로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, 남아 있는 오래된 건물들도 이 시대의 것들입니다. 마을에 남아 있는 두 곳의 전통 온천도 옛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.